



낙농산업 현실에 입각한 유우개량사업 추진방향



정용호 · 부장
유우개량부

1. 머리말

지난해의 낙농산업계를 되돌아보면 원유수급 불균형 속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낙농가와 축산관련단체들의 낙농산업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지난해 말부터 세계자유무역시장 속에서 국가 다자간 DDA협상이 본격적으로 타결을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 하고 미국과의 FTA협상으로 인한 우리 낙농산업은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 놓여 우리 낙농가들은 일치단결하여 전국각지에서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축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한해였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3년에 이어 여러 지역에서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부루셀라 발생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방역당국과 양축농가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한해를 보냈다고 생각된다.

600년 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모든 근심을 벗어버리고 축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데 2007년도에는 그렇치만도 못할 것 같다. 모든 것이 우리 낙농산업에 있어 어려운 환경여건이 조성되어 젖소 사육두수와 농가수는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호당 사육두수는 증가되리라 예상된다.

2. 젖소 사육두수 변화

연말통계를 보면 2005년 말 젖소 사육두수는 479천 두였으나 2006년 12

월에는 464천두로 약 15천두 감소하였다.

낙농산업의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임 암소도 지난해에 비해 약 9천두가 감소된 319천두로 낙농산업이 상당히 위축되었으며 앞으로도 사육두수는 어느 일정기간동안 감소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미국과의 FTA협상으로 관세를 폐지와 유제품 수입으로 인한 젖소농가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업종변경과 폐업으로 이어져 낙농가수는 상당수 감소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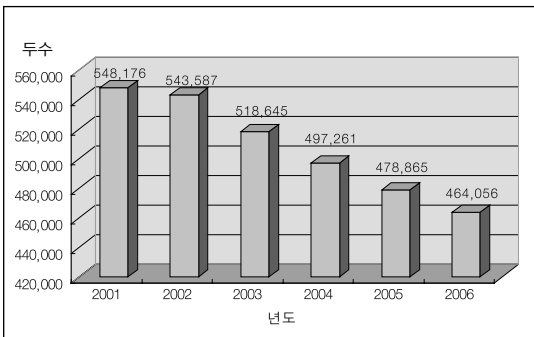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젖소사육두수

자료 : 농림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가축통계

〈그림 1〉은 연도별 사육두수를 나타낸 것으로 2006년 사육두수가 464천두로 200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때 84.7%로 크게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점차 감소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낙농가는 2005년 말 8,923가구이었으나 2006년 말에는 8,260가구로 663가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것은 낙농후계자가 없던지 낙농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젖소농가들이 업종변경을 하고 있는 추세로 생각된다.

그리고 50두 미만의 농가는 줄고 중·대규모 사육농가는 지난해에 비해 약보합이나 약간 증가되고 있다.

표 1. 전국 젖소 사육농가수의 변화 (단위 : 가구수)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가구수	12,827	11,716	10,514	9,612	8,923	8,260
가구당마리수(두/회)	42.7	46.4	49.3	51.7	53.7	56.2

자료 : 농림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표 2. 젖소 검정사업참여 농가수의 변화 (단위 : 가구수)

년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 국(A)	4,282	3,983	3,925	3,903	3,796
협 회(B)	982	928	892	908	847
비율(%)	100(A)	93.01	91.66	91.11	88.65
	100(B)	94.50	90.84	92.46	88.65

〈표 1〉의 최근 5년 동안 가구수와 호당 마리수를 살펴보면 01년도에 비해 젖소농가는 약 4,567가구가 줄어들어 2001년도에 비해서는 약 64.4%수준에 있다. 호당 마리수는 서서히 규모화가 되어가고 있어 호당 50두 미만 농가는 서서히 줄고 100두 이상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서서히 대규모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를 보면 전국의 검정사업 참여농가나 협회에 검정사업을 참여하는 농가는 2002년 기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2003년도 부터는 사육두수나 농가수는 점차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검정농가수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486농가가 감소한 3,796농가로 88.65%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회는 2005년도에 개량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검정농가를 확대하여 늘어났으나, 2006년도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낙농산업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135농가가 줄어든 847농가로 86.25%로 나타났다. 이러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2002년 10월경에 잉여원유차등가격제(쿼터제 도입)실시와 2003년 원유생산 감축대책시행에 따른 저능력우의 도태와 고



령화에 따른 업종변경과 폐업농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가. 경산우 및 착유우 두수의 변화

번식두수는 가임암소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가임암소 숫자는 2세 이상의 암소와 1~2세 암소의 50%를 가지고 계산하고 있다.

2005년도 초유떼기 암송아지가격은 원유가격의 인상으로 매우 높았으나, 2006년도는 2005년도에 비해 초유떼기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가임암소의 인공수정실적의 부진으로 금년도 상반기의 송아지의 분만두수는 감소되리라 예상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젖소두수로만 살펴본다면 가임암소대비 매년 가임암소의 감소로 인하여 송아지 생산두수는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표 3〉은 연도별 젖소정액 공급량을 나타낸 것으로 국내산 정액의 경우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수입산 정액은 2003년도 부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임암소 두수는 앞서 논하였듯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정액 공급

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수태율이 떨어져 가임암소당 정액수가 2개 이상 공급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 낙농가들이 수입정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수입상사에서 수입산 정액을 대량으로 들여와서 재고로 있든지 일 것이다.

따라서 가임암소로 송아지 생산두수를 추정하면 2006년도에는 (739천st(개))로 319천두 2.3개 = 733천st(개)) 가임암소 1두당 약 2.3개 정도가 공급되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으며, 2007년 송아지 생산 예상두수는 약 223천 여두의 송아지가 생산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산상으로 나오는 추정치 일 뿐이다.

표 3. 연도별 젖소정액 공급현황 (단위 : 천st)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공급 수량	국내산	602	596	433	435	406	383
	수입산	345	297	262	273	341	370
	계	647	893	695	708	747	739
가임암소(두)	378	369	356	342	328	319	
송아지생산(두)	(264)	(258)	(249)	(239)	(229)	(223)	

()은 가임암소에 대한 송아지생산을 70%적용한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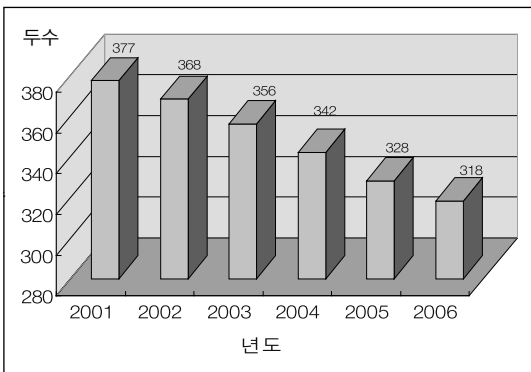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가임 암소의 변화

자료 :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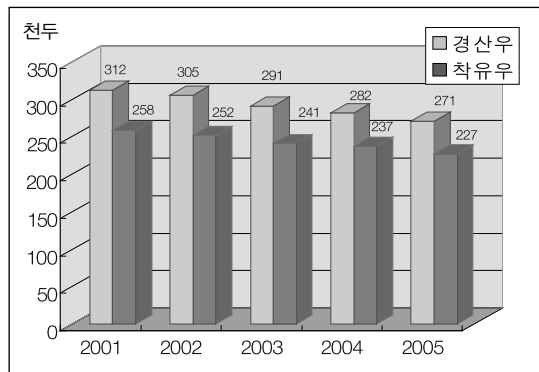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경산우 및 착유우 두수

자료 : 농협중앙회 젖소개량부

〈그림 3〉은 경산우와 착유우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2001년도에 312천두에서 2005년 말 기준에 비하여 41천두가 감소한 271천두이고, 착유우는 258천두에서 31천두 감소한 227천두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낙농후계자가 없고, 또한, 젖소개량을 통한 고능력우의 확보로 인한 낙농산업이 친환경축산을 피하기 위해 저능력우의 도태에 의한 것으로 두수가 감소된 것이라 생각된다.

2007년도에는 낙농산업과 관계되는 외부요인으로 미국과의 FTA협상이고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과의 FTA협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된다면 현재 우유관련유제품이 수입되고 있는 탈지, 전지분유는 고율관세이지만 관세인하 시에는 원유생산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 생각되고, 또한, 치즈계통의 유제품의 수입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낙농산업이 침체되고 젖소 사육두수가 너무나 감소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낙농가의 사육의지 저하를 초래하게 될 지 심히 염려된다.

나. 젖소 도축두수의 변화

젖소 사육두수는 생산두수 - 도축(폐사)두수 = 잔여두수로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다. 아무리 송아지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하여도 생산되는 송아지보다 도축되는 젖소가 많다면 젖소 사육두수는 증가되지 않는다.

2006년도의 송아지 생산두수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증가가 약간 보이고 있으나 젖소도축두수 현황을 살펴보면(표4). 2004년도를 기점으로 도

축두수는 감소하게 되었으나 송아지 생산두수는 2005년도에 229,676두중 암송아지는 114,838두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2005년도 젖소의 도축비율이 34.06%이고, 2006년도 암송아지는 111,565두로 도축두수보다 약 8,877두가 많이 생산되었고, 도축비율은 32.21%로 지난해에 비해 1.85%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낙농산업이 점차로 안정화 또는 조정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다. 초유떼기와 초임만삭 산지가격의 변화

초유떼기의 산지가격 변화를 〈그림 4〉로 살펴보면 2004년도 9월에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2005년도 하반기까지 41만원 상승 하였으나, 2006년 초부터는 하락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89.5%인 36만원대의 큰 폭으로 하락 하였다.

초유떼기의 가격하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지리라 생각되나 앞에서 논하였듯이 가임암소 두수에서 태어나는 금년도 송아지 생산두수와 지난해 도축된 두수(젖소와 미경산우)가 금년도에 똑같이 도축된다고 가정하였을 때와의 젖소사육두수는 변동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외부적인 요인이 없다면 상반기에 형성된 초유떼기의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연말까지 이어지리라 생각된다.

초임만삭의 산지가격의 경우 원유와 비육우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도 241만원인 것이 2006년도에는 130%가 오른 26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혈통기록이 확실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능력우의 초임만삭인 개체에 대하여는 산지가격보다는 높게 가격이 형성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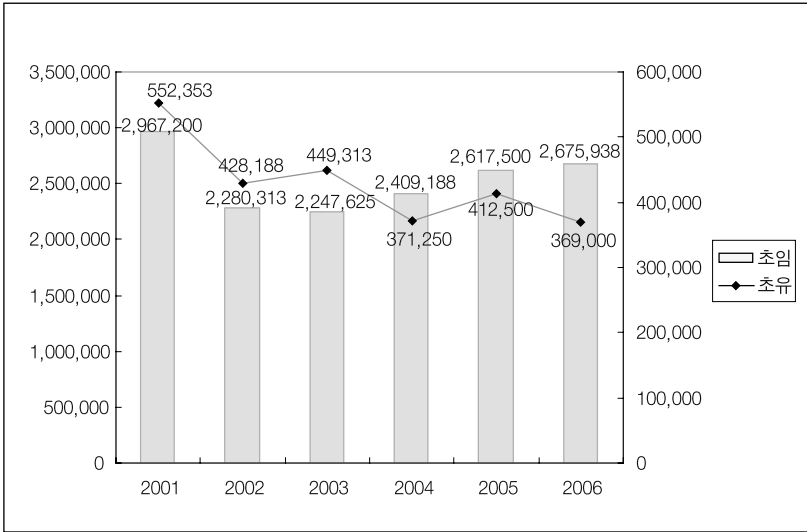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초임때기 및 초임만삭의 가격변화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산지가격

매년 추진하고 있는 미국홀스타인협회 선형심사 연수를 처음으로 3명을 파견하여 젃소의 경제수명과 연관된다고 하는 체형에 대한 평가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또한 매년 개최하는 한국홀스타인품평회를 낙농가와 소비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회로 개최코자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무난히 대회를 마쳤다는 감사의 마음이

3. 유우개량부 사업결산 및 계획

지난해의 유우개량부 사업실적을 보면 100%를 달성하였지만 총 예산으로는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조금만 열심히 했더라면 모두 달성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으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국내·외의 많은 변화로 인하여 위축된 환경하에서 그래도 이만큼이나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낙농가와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낙농산업의 기초인 등록과 검정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만 낙농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006년도의 유우개량사업은 어느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사업이었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선형심사와 홀스타인품평회라 아니할 수 없다.

가슴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가. 등록사업

본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유우개량사업 중 등록사업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으며, 계획대비 실적은 약 80%에 이르고 있다. 젃소 전체 사육두수 중 가임암소에서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은 약 22만 두 중 암송아지가 11만두로 혈통등록 된 것은 35,185두로 약 31.96%가 등록되었다. 전체 등록우중 혈통등록이 차지하는 비율은 56.0%로 전년도 48.3%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은 혈통등록이 개량에 기본이 되고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각 도별 젃소 등록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 등록우 중 차지하는 비율이 54.4%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충남, 경북, 충북 순으로 활발하게 등록이 전개되고 있다. 등록사업이 미진한 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축·낙협,

표 5. 도별 등록구분별 등록두수 (단위 : 두)

도	구분	기초				혈통				합계
		3개월	3~6개월	6개월	계	3개월	3~6개월	6개월	계	
경기		936	617	10,649	12,202	13,009	3,692	5,256	21,657	34,159
강원		53	47	899	999	775	228	477	1,480	2,479
충북		48	58	2,271	2,377	431	349	432	1,212	3,589
충남		118	154	4,550	4,822	1,344	782	2,122	4,248	9,070
전북		98	60	1,489	1,647	603	213	657	1,473	3,120
전남		29	20	1,401	1,450	604	167	546	1,317	2,767
경북		92	83	2,316	2,491	1,101	464	762	2,327	4,818
경남		38	49	1,354	1,441	281	253	439	973	2,414
제주		5	44	137	186	44	47	107	198	384
합계	계획	2,400	1,000	32,000	35,400	21,000	6,800	14,800	42,600	78,000
	실적	1,417	1,132	25,066	27,615	18,192	6,195	10,798	35,185	62,800
	(%)	(59.04)	(113.20)	(78.33)	(78.01)	(86.63)	(91.10)	(72.96)	(82.59)	(80.51)

낙농가 등과 유기적인 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개량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선형심사 및 검정사업

심사사업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은 젖소의 경제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낙농가들이 잘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수한 유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체, 즉 체형과 생산능력이 우수한 고능력우의 확보로 친환경축산을 영위하고 적은 두수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마인드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회에서는 낙농가의 경영마인드에 부응하고 선형심사 자질향상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미국홀스타인협회에 의뢰하여 직원 3명을 파견연수를 보냈다. 심사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대비 실적이 102%를 달성하였다.

검정사업은 매년 사육두수 감소와 낙농가의 업종변경 및 폐업으로 인하여 검정을 받고자하는 낙

농가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획대비 실적이 115%를 달성 하였다. 검정은 개량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더 많은 낙농가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2005년도 전체 젖소 사육농가 8,923농가 중에서 3,903농가가 검정에 참여하였고, 2006년도에는 8,260농가 중 45.96%인 3,796농가만 검정사업에 참여를 하여 전년도 대비 사육 농가수는 92.57%, 검정참여 농가는 97.26%로 감소하였다. <표 7>을 살펴보면 검정참여두수는 2005년도 130,643두에서 136,824두로 104.73%로 증가되었다. 참여 농가수는 줄어들고 검정두수는 늘어난 것은 개량사업에 열정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만으로 정리되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회 검정농가나 검정두수 현황을 살펴보면 외부적이나 내부적인 환경요인에 의해서 2005년도 906농가, 34,087두에서 2006년도에는 각각 93.49%, 96.53%로 감소하였다.



표 6. 도별 심사두수 및 검정사업 (단위 : 두, 건)

도	구분	심사사업(두)			검정사업(건)		
		종모우	종빈우	소계	검정	의뢰	소계
경기		15	24,262	24,277	146,225	20,756	166,981
강원		-	1,975	1,975	30,728	-	30,728
충북		-	3,724	3,724	39,205	-	39,205
충남		-	3,522	3,522	40,618	-	40,618
전북		-	1,988	1,988	31,082	-	31,082
전남		-	633	633	31,435	-	31,435
경북		-	4,368	4,368	29,316	-	29,316
경남		-	304	304	4,592	37,969	42,561
제주		-	171	171	-	37,012	37,012
합계	계획	30	40000	40,030	390,000	-	390,000
	실적	15	40,947	40,962	353,201	95,737	448,938
	(%)	(50.00)	(102.37)	(102.33)	(90.56)	-	(115.11)

표 7. 도별 검정농가수 및 검정두수 (단위 : 호, 두)

도	구분	전국				협회					
		2005		2006		2005		2006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기초	혈통	두수
경기		2,236	75,751	2,149	75,163	348	13,271	341	5,481	3,125	13,607
강원		189	6,085	185	6,116	96	2,976	92	1,511	1,360	2,871
충북		151	5,078	181	6,011	99	3,375	104	2,455	1,188	3,642
충남		483	17,996	479	18,357	93	3,689	94	1,708	2,062	3,770
전북		186	7,397	165	6,997	115	4,579	71	1,667	1,244	2,911
전남		147	5,999	139	6,064	68	3,061	61	1,311	160	2,918
경북		255	9,575	252	9,710	75	2,728	72	1,674	1,070	2,744
경남		206	8,162	201	8,406	12	408	12	271	171	442
제주		50	2,400	45	2,312	-	-	-	-	-	-
합계		3,853	136,043	3,751	136,824	906	34,087	847	16,078 (48.9%)	16,827 (51.1%)	32,905 (100%)

기 준 : 2006년 12월 검정

자료제공 : 농협중앙회 젖소개량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유우개량부

또한, 검정 대상우 전체를 파악할 수 없으나, 본 회 검정 참여우는 기초등록이 48.9%, 혈통등록이 51.1%로 기초등록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무엇보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다. 기타사업

지난해 처음으로 젓소 선형심사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낙농산업 관계자들로 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 교육은 심사를 통해 선발과 도태, 그리고 계획교배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및 농가의 지도교육 컨설팅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참여자는 공무원, 축·낙협 직원, 유전자원업체, 등록 및 검정위원 등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였다. 처음 실시한 교육이라서 미비한 점이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홀스타인품평회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성장한 대회로 자리 매김하였다. 전년에는 베스트쓰리피메일과 카운티허드라는 2개부가 신설되어 내실을 기하였으며, 소비자와 하나가 되어 불거리를 제공코자 유제품 전시회, 우유관련 요리쇼, 시식회 등을 실시하여 낙농가와 소비자, 축산관련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행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품평회의 꽃인 코리아나세일은 철저한 기획과 검증을 받은 우수한 젓소가 출품되어 경매최고가격은 580만원이고, 최저가격은 410만원이었으며, 평균가격은 487만원으로 거래되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농가들의 친환경 목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고능력우 확보를 통한 고효율 목장경영을 꾀하고자하는 경영마인드의 변화라 생각된다.

라. 2007년도 유우개량 사업계획

2007년도 유우개량 사업은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사업별로 중점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낙농가가 원하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동시에 직원의 기술 및 자질함량을 높이기 위해 월

별로 주제토론회를 실시하고, 일의 효율을 위해 프로그램개발 즉, 업무의 전산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 **등록사업**은 지난해 서울우유조합에서 발표한 젓소혈통구조 개선을 위한 조기등록시스템 개발에 의한 등록의 활성화와 등록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전산등록체계의 확립에 역점을 두고, 또한 등록증명서에 혈통 계대를 표시하고 내실화를 꾀할 것이며, 혈통능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농가서비스를 강화코자 한다.

앞서 논하였듯이 본회 검정회의 혈통비율을 높이기 위해 검정회를 방문 또는 교육을 실시하여 혈통등록을 통하여 고능력우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득과 연관시켜 농가경영에 도움을 주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축·낙협 유대강화를 꾀하여 등록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2) **심사사업**에 있어서는 낙농가들이 선형심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매년 사업두수가 증가되고 있으나, 선형심사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홀스타인협회에 직원을 파견하여 자질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젓소심사기술교육(judging school)을 계획하여 축산관계자들에게 선형심사에 대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젓소개량에 있어 선형심사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보다 많은 농가, 보다 많은 두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한다. 또한 선형심사점수제를 1~50점에서 1~9점제로 변경 추진하여 선형심사 대상형질간의 점수 폭을 줄여 심사자간의 편차를 줄이고, 농가가 선형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전능력을 평가 시 50점제



표 8. 2007년도 유우개량부 사업 추진계획 (단위 : 두, 건)

구 분	등록사업			심사사업			검정사업	
	기초	혈통	계	종빈우	종모우	계	건수	계
두수	28,700	36,300	65,000	42,000	30	42,030	350,000	350,000

의 정규분포보다 9점제가 보다 정확한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이점이 있어 추진코자 한다. 그리고 심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심사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현장입력기(PDA)의 개발을 통하여 선형심사결과의 신속한 전달과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한다.

3) **검정사업**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매년 전국의 낙농가수와 사육두수는 줄어 들고 있는 반면 검정에 참여하는 두수는 증가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은 혈통등록과 기초등록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표 8). 그리고 우리 협회의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수나 두수가 모두 감소되는 현상을 볼 때 금년도에는 농가와 두수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의 종축 산업발전 대책 일환으로 한경대학교내 한국종축개량협회 중앙유성분 분석소를 설치 운영하여 신속한 유성분 분석과 검정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혈통, 심사자료를 연계하여 농가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4) **기타사업**으로 한국홀스타인품평회와 지도교육사업이 있다. 홀스타인품평회는 우리나라 젖소의 체형변화 즉, 개량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나 낙농가 그리고 축산관련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낙농 산업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인 동시에 우

리 낙농인과 소비자가 만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홀스타인품평회를 체계적인 기획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Dairy Expo 형태로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코리아나세일에 있어서는 고능력우에서 태어난 송아지들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보다 많이 출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지도 교육사업은 우선 검정보고회, 권역별 순회세미나, 검정위원 보수교육 등은 교육에 있어 찾아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받는 자가 찾아오는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으로 지향하고자 한다. 선진 낙농국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우리낙농가에 접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낙농경영을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는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여 21C에 맞는 친환경 낙농경영을 하도록 노력코자 한다.

젖소 심사기술교육은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많은 공무원, 낙농관련 관계자, 등록·검정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낙농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선에서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등록·심사·검정의 자료를 농가들에게 윈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한다. 혈통기록과 선형심사 자료와 검정성적을 이용한 개체별 계획교배 지침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농가에 Supervisor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4. 맺음말

2006년도에는 과거 어느 해보다 많은 일을 하였고 힘들었던 해였으며, 우리나라 축산업에 큰 이슈가 된 미국과의 FTA협상이라는 큰 난관에 봉착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축산을 사랑하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축산을 지키고자 맑은 날이나 비바람이 치던 날에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또한 전국의 우리 낙농인에게도 희망의 불씨가 보였던 한 해이기도 하였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낙농자조활동사업이 실시되어 미래 한국낙농의 등불을 밝혔고, 낙농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 해였으며, 우리 축산인의 염원인 농지법개정으로 한결 쉽게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축산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는 낙농산업의 기초가 되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젖소개량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젖소의 생산능력 즉, 최대유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선형심사를 통한 체형 개량으로 4.5산까지 다산화를 유도하여 능력이 발휘하기 전에 도태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일부 흑자는 젖소개량으로 우유가 과잉생산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젖소를 개량하여 현재보다 보유두수는 감소시키면서 고능력우의 확보로 산유량을 늘리게 되면 유해가스를 줄이고 생산비를 줄임으로서 친환경축산 시대를 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낙농기는 낙농산업이 위축되고 환경여건이 나쁘고 힘들다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로 신선한 유제품 즉, 치즈생산과 웰빙산업에 걸 맞는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고품질 우유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낙농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낙농가! 라는 자부심을 갖고 낙농산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007년도에는 지난해 설립한 낙농자조금사업을 십분 활용하여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를 확대시키는 것이 낙농산업발달에 열쇠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유 소비가 위축된다면 정말 큰일이다.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 힘을 합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젖소를 기르며 개량사업에 동참하고 소비를 촉진시킨다면 낙농산업은 무한히 발전하리라 생각된다.

